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이야기 설교. 제7장: 설교 구성 및 개요 작성.

스티븐 D. 매튜슨 박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인 '설교 구성 및 개요 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구성과 개요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설교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현명한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설교할 내용을 먼저 말하고,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설교할 때는 이 조언이 오히려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설교하려면 설교자는 설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교 개발 과정의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설교자는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사용할 것인가? 내 설교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설교를 구성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설교에 관한 유명 간행물의 1년 치 호를 훑어보았는데, 구약 성경 이야기 본문에 대한 대부분의 설교 원고가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바탕으로 모세의 삶에서 얻은 불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한 세 가지 핵심 비결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3절을 인용하여 요셉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나열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설교자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혹 극복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약 성경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들의 전략이나 문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종종 설교는 이야기의 예언적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설교자가 본문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원칙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이용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원칙들이 신약성경과 같은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이 특정 이야기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따라 설교의 구성을 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야기처럼 들려야 합니다. 마치 동화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성경 이야기꾼이 따랐던 것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설교 아이디어 전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귀납법과 연역법입니다.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역적 추론부터 살펴보죠. 연역적 추론에서는 결론이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답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것을 세분화하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연역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하면 매우 명확해질 수 있지만, 지루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핵심 아이디어를 미리 다 말해버렸다면, 누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저자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 서신서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연역적인 서술 방식은 아니지만, 때로는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하고 나서 저자가 그것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거나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죠.

이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그럼 긴장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글 속에서 긴장감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건 말이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긴장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설교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유익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듣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게 어떻게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귀납적 추론은 구체적인 증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은 마지막에 가서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귀납법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나쁜 것이고,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몰랐지만 정말 흥미로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납적 추론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청중은 설교자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귀납적 추론은 설교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귀납적으로 설교를 구성하면 긴장감을 조성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연역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귀납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야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이야기는 귀납적으로 작동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답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모든 세부 사항과 함께 답이 주어지지만,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야기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답이 드러납니다.

제 말은, 좋은 이야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핵심 아이디어는 마지막에 제시하고, 제가 '전략적 지연'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핵심 주제는 초반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제시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기 시작했을 초기에는 항상 회중에게 제가 무엇을 말할 계획인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제 핵심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놓칠까 봐 너무 걱정돼서 이야기 형식 자체를 믿지 못하고 처음부터 핵심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했죠. "오늘 아침 우리는 사무엘상 5~7장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아니라, 경배해야 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결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뿐입니다. 전략적인 지연은 설교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데, 이야기 구성 방식이 보통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 화자는 초반에 미가에게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자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즉 18장 31절까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숨겼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두 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항상 하나님의 집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같지만, 관사 "the"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항상 실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설교자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이야기의 끝부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야기 초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 끝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생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대한 설교에서, 11장 11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고귀한 말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의 뒷부분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며, 다윗에게는 없었던 성품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여 자신이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고 왜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장막에 머물고 있고, 제지휘관 요압과 주님의 군대는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 계시는 한,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 부분을 건너뛴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의 행동과 대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셨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핵심 주제를 마지막에 배치하고, 위기나 이야기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감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긴장감은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긴장감이 사라지면, 설교도 끝나는 겁니다. 설교를 끝냈든 안 끝냈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야기 설교에서 귀납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야간 이야기에서는 야간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가 과연 발각될지, 어떻게 발각될지 궁금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귀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전개할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개요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개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해든 로빈슨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설교 수업을 들었는데, 제 친구 딘이 설교 개요를 처음으로 공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작업을 해야 했고, 그 후 로빈슨 박사님께서 우리의 작업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하도록 배정되었는데, 그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책에서 그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책에 실었는데, 친구 딘이 제 이름을 바꿀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으니 본명을 쓰라고 했어요. 딘이 말하길,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했습니다. 둘째,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겁에 질렸습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승리했습니다.

음, 두운이 맞죠? 도전, 겁먹음, 정복, 그리고 병렬 구조잖아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해든 로빈슨은 잠시 침묵하더니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마치 '주일 저녁을 위한 간단한 설교' 라는 책에서 나온 말 같군." 그러자 우리 모두 폭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긴장된 웃음이자 동정의 웃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례가 곧 우리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든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엔 강단에서 말고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드웨인 리트빈 객원 교수는 그날 해든 목사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당신이 실제로 그 설교를

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 과정에서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우리 중 일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언 채플도 그의 저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강의실과 세미나에서 설교자들이 설교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구조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개요 작성, 특히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개요 작성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개요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마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배웠는데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개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 집 골조를 맡았던 시공업자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일을 도왔었죠.

어느 날 벽 골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x4 목재와 스테드를 사용하고, 상단 플레이트와 하단 플레이트를 놓고, 스테드를 바닥에 놓고 못을 박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때 제 친구이자 건축업자인 존이 지나가면서 "야, 너희 지금 피아노 짓는 거 아니지?"라고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라고 했더니, "피아노 짓는 거 아니잖아."라고 다시 말했죠.

내가 "존,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기둥들을 1/16인치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시는 거군요."라고 말하며 "그렇게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석고보드로 덮을 거라고 말했어요. 대충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아직 완성된 작업이 아니에요. 아주 정밀한 작업은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개요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튼튼한 틀은 필요하지만, 설교 개요 위에는 석고보드가 썩어질 겁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비유를 다시 들자면, 사람들은 제 뼈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뼈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개요 항목들이 특히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류의 문학 작품에서도 때로는 청중이 개요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목록 형식으로 정리된 설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요 항목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설교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개요 항목과 세부 항목들이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항목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전할 때 전달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를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 팁은 주요 항목을 시작이 아닌 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야기는 귀납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개요는 연역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충동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설교 서론을 마치고 첫 번째 요점을 말해야 할 때, 곧바로 세부 요점 A, B, C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첫 번째 요점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충동 말입니다.

네, 이야기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요. 개요의 요점은 한 섹션의 끝에서 드러나길 바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첫 번째 요점이 있다면, 그 요점은 이 이야기에서 성경 본문의 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글의 핵심 아이디어는 끝까지 읽어야만 비로소 명확해질 겁니다. 그러니 먼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핵심 요점에도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점을 굳이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개요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핵심 요점, 즉 첫 번째 요점을 정해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납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적겠습니다. 이는 제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사고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는 아마 마지막에 드러날 겁니다. 자, 세 번째 팁입니다. 개요의 요점을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그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개요의 핵심 내용이 이상승배의 문제라면, 그건 주제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이 개요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상승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 요점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해요. 즉, 이 개요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주제만 나열한 개괄적인 개요가 되어버릴 거예요.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불완전한 문장은 마치 축구공처럼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만들어요.

멋지네요. 비 때문에 습기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요를 작성할 때, 이런 사고방식을 기억해 두면 과정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점을 완전한 문장으로 적지 않고, 요점 대신 흐름이나 전개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마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요점 대신 장면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설교에서 특정한 요소, 예를 들어 장면이나 대화, 혹은 신학적 개념이 청중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또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고, 개요에서 "첫 번째 요점"을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설교의 첫 번째 흐름, 제가 묘사할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개요 항목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다룹니다. 제가 그 항목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청중에게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또는 "제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알려주고, 이야기의 이 부분을 다룰 것임을 알려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다섯째, 핵심 요점을 두세 개 정도로 좁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잘 정리되어 있고, 설교의 주요 흐름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들은 대부분 두 가지 핵심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두 가지 요점은 위기와 해결을 반영합니다. 위기는 대개 문제점을 나타내고, 해결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 또는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물론 핵심 요점을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네 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점이 네 개 이상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핵심 요점들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한 단계 아래로 옮겨서, 이 두세 가지 요점이 더 큰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게다가 핵심 요점이 두세 개 이상이라면, 설교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복잡하면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목 수를 줄이거나 항목을 없앨 필요는 없지만, 항목들을 통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와 해결이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그 중심으로 설교 구조와 개요를 짜는 것이 좋습니다. 설교 초반에 해설을

위해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결론 부분에 또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요는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개요가 복잡하면 설교 내용이 불분명해지고, 전달하려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팁입니다. 개요에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시키세요. 저는 주요 요점 중 하나로 명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보통 마지막 요점을 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일부 설교자나 교사들은 결론 부분에 넣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핵심 주제는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개요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요점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 핵심 주제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본문을 살펴본 후에 별도의 요점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어느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습니다. 개요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세요. 사사기 17장과 18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설교에서 "와, 두 장이나 되는 분량이네"라고 생각될 만한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참고로, 그 내용은 장 구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첫 번째 핵심 요점은 17장 1절부터 18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가와 단 지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제 첫 번째 핵심 요점은 미가와 단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그걸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위기라는 걸요.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도 바로 그거예요.

요약하는 말을 좀 덧붙여야겠네요. 18장 17절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저는 그 모든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의 일부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단 세 가지의 세부 사항만 준비했는데, 그것들은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한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보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핵심 사항, 즉 하위 사항들을 보면 제가 반드시 언급해야 할 중요한 개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것들은 제가 설명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첫 번째 요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권위 없는 종교 체계를 구축합니다. 즉, 그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B 지점에서,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상속지를 차지하는 대신 멀리 떨어진 라이스 성을 보았습니다.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 지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나선 정탐 임무는 허가받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은 자기 부족을 위해 땅을 차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 있던 적들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세 번째 세부 사항인 C항에서,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가져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저는 그저 이야기의 주요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이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첫 번째 핵심, 첫 번째 요점은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점은 18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 핵심 주장을 간단히 제시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말하려는 요점이에요. 그게 이야기의 결말이죠. 슬픈 결말이죠, 안 그래요? 비극이에요.

이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요점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점은, 첫 번째 요점이 이것이었고, 두 번째 요점은, 이야기꾼이 하는 방식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몇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제목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요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에 넣을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었고, 제 큰 아이디어는 마지막 세부 요점에 넣었습니다. 아마 결론의 첫 번째 세부 요점에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이야기의 끝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요를 작성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개요는 까다롭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개요가 완성되면 이제 살을 붙여 나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개요를 바탕으로 설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스티븐 D. 매튜슨 박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설교의 구성과 개요 작성입니다.